

루게릭 치료제 '메카신' 식약처 승인

원광대 김성철 교수 개발 루게릭질환 한약제제... 상업화 임상시험 승인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의 김성철(광주한방병원 회귀난치성루게릭센터장) 교수가 최근 개발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 치료제 후보 물질인 '메카신(Mecasin)'의 제형화 효력임상시험이 식약처로부터 최종 승인, 관심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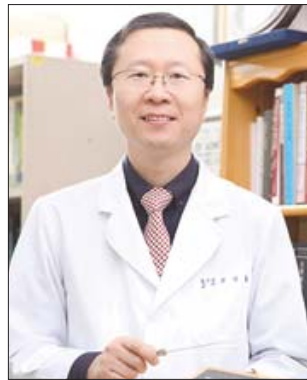
김성철 교수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으로 개발한 한방 루게릭 치료제 후보 물질 '메카신(Mecasin)'은 작약, 감초, 정제부자 등 한약재로 이루어졌으며, 부자에서 아코니틴을 제거하는 (유)한방제약의 독자적 기술을 이용해 30% 추정추출

로 만든 한약제제로써 국내 특허를 획득하고, 해외 특허도 출원했다.

신약품목 허가를 목적으로 (유)한방제약의 상업화 2상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메카신은 현재까지 원광대 광주한방병원과 원광대 산본병원에서 양·한방협력연구로 탐색적 임상시험을 시행해 '메카신'의 용량결정실험인 2a 상 임상시험이 완료 단계에 있으며, 용량이 결정되면 곧바로 2b 상 임상연구에 돌입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 다국가 다기관 임상시험을 통해 루게릭질환의 최초 한약제제로 제품화할 계획이다.

특히 '메카신'은 효력시험을 통해 항산화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신경세포 보호 및 항염증 작용으로 루게릭 질환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김성철 교수는 지금까지 메카신과 관련하여 SCI를 포함해 총 1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성철 교수는 "진행성 운동신경 질환인 루게릭은 발병 후 3~4년의 짧은 수명을 보이고, 현재 치료제로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항글루타메이트약인 리루졸(Riluzole)과 항산화제인 라니켓(수액제제)이 유일하지만,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에 비해 다양한 부작용



이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산=우병희기자

대학진학 중소기업 등록금 첫 전액지원

장학재단 내달 6일부터 접수 중소·중견기업 3년이상 재직자 올해 2학기부터 총 290억원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고졸 직원이 대학에 진학해 공부하면 올해 2학기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II 유형) 기본계획'을 지난 30일 발표했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선취업 후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 부담없이 언제든지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290억원이다. 장학금 선발 규모는 약 9000명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대학생(1~4학년)이다. 직업계고 졸업자와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면 수혜 학기당 4개월간 기업에 다녀야 한다.

장학금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달 6일부터 17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제출서류 검증 등을 거쳐 9월까지 장학생을 선발하고, 이의신청 기간 거쳐 10월 중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앞으로도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더욱 확대해 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취업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라북도교육청이 '2018 사제동행 국외 역사체험학교'를 오는 8월 2일까지 6일간 중국에서 진행한다.

도내 고교생, 안중근 의사 독립운동 경로 걷다

'사제동행 국외 역사체험학교' 중국 하얼빈-용정-백두산-장춘-여순-대련 탐방

도내 고교생들이 교사들과 함께 중국에서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 경로를 탐방하는 역사체험을 진행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18 사제동행 국외 역사체험학교'를 오는 8월 2일까지 6일간 중국에서 진행한다. 고교생과 교사 31명, 학부모 10명 등 총 41명 참가한다.

이번 역사체험학교에는 도내 고등학교 1학년 중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학생 30명, 지도교사 10명과 전문강사 2명 등 45명이 참여한다.

탐방단은 지난 7월 28일 도교육

청을 출발해 5박 6일 간 중국 하얼빈-용정-백두산-장춘-여순-대련 등 독립운동 역사현장을 탐방한다.

탐방단은 이 기간 안중근의사 기념관을 비롯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무대이자 운동주 시인의 출신 학교로 많이 알려진 용정 대성중학교와 운동주 시비, 일송정 등을 찾고 백두산 천문봉·포천지·장백폭포 등을 돌아본다. 또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받았던 옛 여순 일본 관동법원 건물과 안중

근 의사가 순국한 여순감옥 등도 탐방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기를 맞아 우리 학생들에게 독립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항일 역사 유적지를 돌아보는 역사체험학교를 기획했다"면서 "참여 학생들이 자주독립과 민족의 화해, 협력, 평화의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역사체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친구와 함께 떠나는 '악자지결' 공감마당

도교육청, 다문화·비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다국어올림 캠프' 운영

전라북도교육청이 지난 30일부터 오늘까지 2박 3일간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어울림캠프를 열고 있다.

올해 첫 발을 디디는 어울림캠프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비다문화 가정 학생을 한 팀으로 참여한다. 도내 11개 시군의 총 42명의 초·중·고학생들이 내 친구와 함께 떠나는 '악자지결' 공감마당이라는 가치로 총 4가지 부분의 체험을 진행하게 된다.

초등 3개조, 중등 1개조로 구성된 캠프는 체험 마당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는 서로의 어려움을 역할극을 통해서 이해하는 '공감역할극', 두 번째 주제는 4차 산업 혁명의 큰 동력인 '드론 체험', 세 번째 주제는 각 나라의 음식문화가 녹아있는 '나라별 동요와 노래배우기', 네 번째 주제는 학생들의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나라별 전통놀이 체험'이다.

2018 다꿈 어울림캠프 운영진에는

전주교육대학교 대학생 8명이 보조교사로 참여하며, 캠프 참여 학생들의 생활과 안전에 도움을 주며, 캠프 둘째 날의 조별 친목시간에는 평소 어려움을 느꼈던 학습문제, 교우문제 등에 상담 기회를 제공하였다.

캠프에 참여한 군산소룡초의 한 학생은 "친절한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서 재미있었다. 특히 친구를 위로하는 초코퀵 편지 쓰기는 매우 즐거웠으며, 첫 시간에 새로운 친구들과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았다"고 솔직한 감정을 나타냈다.

전주교대 최영은 보조교사는 "2018 다꿈 어린이 캠프의 주요목표인 서로 다른 개개인의 배경문화를 이해하고, 어울림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모습,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모습이 잘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이남호 총장이 여름 특별학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수업이 이뤄지는 강의실을 깜짝 방문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남호 총장 여름특별학기 수업 학생 격려

전북대 강의실 방문해 아이스크림 나눠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이남호 총장이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폭염 속에서도 기초교육 강화를 위해 마련한 여름 특별학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수업이 이뤄지는 강의실을 깜짝 방문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총장은 지난 31일 오전 양 수에 아이스크림을 한 아름 안고 수학 기초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자연대 본관 강의실을 찾았다.

이 총장은 학생 한명 한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며 격려했고, 무더위 속에서도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수업에 열중하던 학생들도 웃음과 환

호로 화답하는 등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남호 총장은 "기초학력을 키우기 위해 방학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열정이 폭염의 기세보다 뜨거운 것 같다"며 "오늘 흘린 땀방울이 훗날 큰 결실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전북대는 교육부 ACE사업의 일환으로 신입생 4학기제를 시행, 여름과 겨울 특별학기에 실용영어나 수학, 물리, 화학 등의 기초과목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 여름방학에는 13과목 52분반에 1,909명의 학생이 참여해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특별학기 수업이 이뤄진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